

# “ACCESS FOR ALL(모두에게 접근권을 보장하자)”

:: 유은주 본회 교육연수과장

세계 에이즈 회의는 UNAIDS, IAS(국제에이즈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개최 초기에는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공유하는 데 주력했지만, 점차 에이즈 자체에 대한 지식이 축적됨에 따라 사회, 공공 보건, 공동체 기반 사회, 지역별, 국가별로 전개된 특수한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단일한 질병을 주제로 한 국제 행사로는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에이즈가 전 인류에게 미치고 있는 심각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회의 주제 : Access for All

에이즈가 발견된 이래 20여 년간 개발, 축적된 방대한 자료에 모든 과학자, 지도자, 공동체 구성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에이즈로 인해 영향을 받은(affected) 사람, 에이즈에 감염된(infected) 모든 사람들에게 에이즈와 관련된 모든 자원(예방, 치료 서비스, 교육의 기회, 각종 정보)에의 접근성을 보장하지는 것이다.

그와 함께 에이즈 문제를 해결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 에이즈 문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 증대가 필요하다는 화두를 가지고 기초 과학, 치료, 예방, 사회 경제 이슈, 정책 수행 등의 다섯 주제들을 심포지엄, 세미나, skills building 활동, 토론, 퍼포먼스, 포스터 전시, 시위 등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공유되었다. 에이즈 확산은 과학적 사회적 정치적인 자원과 함께 의료인/과학자, 정부, NGO가 모두 합심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극적으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까지 치료제를 제공하지는 WHO의 에이즈 전략으로 에이즈 전파를 막는 활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에이즈로 인한 죽음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에이즈 치료제가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가난한 나라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의 약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에이즈기금(GFATM: Global Fund for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에 대한 선진국의 기부와 치료제 기술의 공유 문제가 관건이다. 그러나 G7은 약속했던 기금을 출연하지 않고 있으며,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이들이 개발한 정품 치료제 기술을 모방한 복제 약을 만들어 쓰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인류를 위협하는 에이즈 문제가 자본주의라는 패러다임에 갇히면서 결국 에이즈 치료와 예방 활동이 돈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는 격이다. 에이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이 철실하게 요구되는 것도 이런 현실에서 출발한다.

## 쟁점

### ① 3 by 5(Treat 3 million by 2005)

개발도상 국가, 중진국가 에이즈 환자 300만 명에게 오는

### ② 콘돔사용이나? 금욕이나? 논란

대다수 회의 참가자들은 금욕과 배우자에 대한 정절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콘돔은 일부 고위험 집단에게 배포하고 있는 옛 부시 정부의 ABC(Abstinence, Be faithful, use

Condoms)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금욕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경제적/사회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약자나 여성,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들의 주장이 이번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의 반영인 듯 미국 대표단의 참여가 지난 회의에 비해 대거 축소된 점은 금욕 위주의 ABC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에 맞선 CNN(Condoms works, Needles save lives, Negotiation Empower) 전략은 누구나 콘돔의 에이즈 예방 효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ABC 전략과 CNN 전략이 맞붙은 논쟁의 장이 있었는데, 잠정적 합의에 이른 내용은 누구나 콘돔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 여러 계층의 다양한 외침

필자는 세계 에이즈 회의장이라는 해방의 공간 속에서만 연출될 수 있는 다양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태국의 주사기 마약 사용자 공동체에서는 태국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이 마약 사용자들을 에이즈 감염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깨끗한 주사기를 확보할 수 있

는 권리를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참가한 성매매 종사자들은 에이즈 감염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일상의 노력들을 큰 목소리로 소개했다. 특히나 동성애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와 동성애와 에이즈에 얽힌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메시지를 널리 전달했다. 청소년들도 에이즈 예방의 자원과 정보에 대한 자신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당당하게 호소했다. 그런 한편에서 에이즈로 인해 영향 받고 있는 사람들(에이즈 고아들, 감염된 자식과 고아가 된 손자를 돌보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만이 아니라 감염된 사람들, 감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주제로 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 세계 에이즈 회의가 낳긴 것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각각 개막/폐막 연설에서 에이즈 문제는 건강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사회 경제 발전을 총체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부, 재계, 시민사회, 감염인들 모두가 힘을 합쳐 에이즈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정은 현격히 다르다. 에이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에이즈가 나와 상관없는 일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에이즈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세계 에이즈 회의장에서 현장 답사 나온 태국의 청소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사녀들 동반한 참가자들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에이즈를 둘러싸고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생생한 현장을 지켜본 이들의 미래는 분명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에이즈 예방교육의 장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세계 에이즈 회의가 열린다면, 세계 각국에서 찾아들이는 이들 만날 미래의 우리 세대들에게 에이즈 문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알게 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